

의사가 기자되기

기자가 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얼마전까지는 병원에 취재를 나가면 웬지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정장차림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이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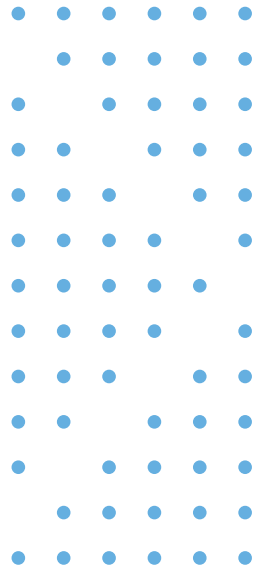
낯선 환경에서 전혀 다른 일에 적응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 기자가 되면 누구나 사회부에서 수습기자 생활을 한다. 보통 두달에서 석달을 하게 되는데 수습기자의 생활은 그야말로 병원에서의 인턴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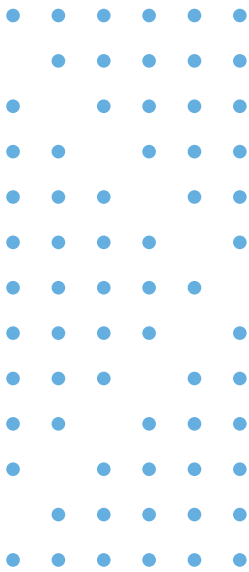
일단 경찰서에 가면 수습기자를 위한 당직실이 있는데 웬만한 병원의 인턴 당직실보다 더 지저분하다. 간이 침대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청소는 몇 달간 안한 듯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게 보통이다.

계다가 하루에 잠은 2~3시간 밖에 못자고 설새 없이 위에서 떨어지는 오터를 수행하고 시간별로 정보를 보고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은 파김치가 된다.

오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보통 불호령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경력직 전문 기자로 뽑혀 마음씨 좋은 시경 바이스(경찰기자의 총책임자인 시경 캡 바로 아래. 병원에서는 3년차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됨)의 지도 감독을 직접 받아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



■ 글·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과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색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움츠러드는 기분이랄까. 사실 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일 이라곤 접촉사고가 나서 가봤던 교통사고 조사반 뿐인데다가 TV에서 보던 무서운 인상의 형님들(기자들은 경찰들을 이렇게 부른다) 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먼저 넉살 좋게 다가가 그들과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다보니 내 마음속에 있던 벽을 허물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무뎠던 보이는 형님들이 여기저기 아프다며 진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한달 간의 경찰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방송기자로서의 트레이닝에 들어갔다.

훌륭한 방송기자가 되려면 일단 오디오가 좋아야 한다. 기사를 읽는 것은 쓰는 것과는 다르다.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또박또박하게 읽어야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잘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오디오가 좋기로 소문난 기자들의 기사를 반복해서 들어보고 녹음실에서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더니 한달이 지나자 어느정도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긴 기사를 읽을때마다 호흡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만큼 오디오는 어려운 부분이다.

기사를 쓰는 연습도 했는데 다행히 기사를 쓰는 것은 오디오 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3단 기사가 아닌 리포트 기사는 인터뷰와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였다. 같은 내용이라도 구성과 배치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취재를 나갔다가 기사의 주제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감각과 순발력 등을 배우기 위해 후배 경찰기자들의 취재를 한 달 동안 따라다녔다.

다들 경찰기자 3~4 년의 경력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목도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달여의 수습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작한 뉴스데스크 리포트는 아들 낳는 약에 대한 현장 출동이었는데 동료 선후배들의 많은 축하 인사말 중 맘에 드는 한마디는 “의학전문기자가 현장출동도 하나? 사회부 기자해도 되겠네.” 였다.

그러나 아직 기자로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만큼 갈길이 멀다고 느낀다.

‘나’ 라는 그릇에 담긴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 끝났을 뿐, 새로운 것들을 담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KHA**

